

구인·구직 만남의 장 열린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만전

임실군로컬JOB센터 행사 11일 개최... 8개 기업 참여 50명 이상 신규 채용

임실군이 오는 11일 임실읍사무소 가족N북카페 및 광장에서 '2025년 임실군로컬JOB센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행사에 많은 구직자와 지역 주민들이 몰리며 열띤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행사는 더욱 확대·강화된 프로그램과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일(JOB)로 만난 사이, 일(JOB) 낚네'란 주제로 관내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안정적 취업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구인 기업 8개 사가 참여하여 50명 이상 신규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기업들이 즉석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하는 채용관에서는 (주)뉴트라코어, (주)한한F&B, 나래식품(주), (주)사조오양,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 섬진강다슬기마을(주), (유)왕성식품, (주)진성기업 등 임실군을 대표하는 지역기업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현장에서 총 5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며, 특히 병동만두 생산 업체인 나래식품(주)에서는 10명 이상,



임실군이 오는 11일 임실읍사무소 가족N북카페 및 광장에서 '2025년 임실군로컬JOB센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그 외 기업별로 현장 면접을 통해 3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 준비생들이 자신감을 높이고 면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취업 메이크업 △지문 스트레스 검사 △퍼스널 컬러 진단 △캐리커처 △취업 타로 등 컨설팅관 11개 부스도 운영되며, 참가자들에게는 경품 혜택도 주어진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내년도 운영 규모 결정 위해 수요조사·상담 창구 운영

남원시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 결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요조사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내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8개월간을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신청 자격은 남원시에 주소 또는 농지를 소유하고 5개월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이 필요한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가이며,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법무부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을 고민하는 농가는 서류 위조·입국 등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월광포차 달빛콘서트 in 운봉' 개최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은주)는 오는 6일 남원시관광협회의 회원들과추진단(위원장 박영태)과 읍서립공원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지원하는 '월광포차 달빛콘서트 in 운봉'을 개최한다.

행사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열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야간관광 콘텐츠 확대와 지역 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남원의 대표 야간 문화축제인 '월광포차'의 의미를 살려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복합형 문화의 장으로 마련된다.

프로그램은 △사립무대 준공기념 터울림(운봉농악단) △운봉중학교 사물놀이 공연 △지역예술 동아리 공연(운봉드럼팀, 소석난타팀, 색소폰 연주 등) △시민참여형 95노래방 △특별 초



청가수 공연(박남정, 박미경)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며, 또한 부스 운영(15개소), 포토존 설치, 지역 농·특산물 판매로 열기를 더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보절면, 6일 삼동(三童)굿놀이 향토축제 개최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일원에서는 오는 6일 칠월 백중(百中)을 맞이해 '제41회 남원삼동(三童)굿놀이 향토축제'가 개최된다.

삼동굿놀이는 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당산제를 시작으로 기세배, 우물굿, 삼동서기, 지네밟기, 함굿 등을 재연하고, 주민화합행사와 함께 다채롭게 진행되어 주민들과 향우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장인 개신마을의 뒷산은 닭의 형상이고 음촌마을 앞산이 지네 형상으로, 마치 지네가 닭을 공격하는 형상에 기인해 지네밟기를 진행, 태어나는 동자들이 임신출세하여 부귀영화



를 얻는다는 풍수설화에 근거한 민속놀이이다.

남원 삼동굿놀이는 1982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지난 2001년에는 지역사회 특성과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힐링 명소 '쉴랜드' 인기

방갈로·워크ेशन 센터·다양한 프로그램 등 만족도 높아

순창군 인제면에 위치한 '쉴랜드'가 휴양과 치유, 교육이 결합된 복합 힐링 공간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쉴랜드는 숙박이 가능한 본관과 방갈로를 비롯해 식문화 실습이 가능한 일스튜디오, 명상관, 일하기정원, 찜질방과 교육장을 갖춘 건강휴양 체험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준공한 워크ेशन 센터는 공유오피스와 팀오피스를 갖추고 있어 '일과 쉼을 동시에 누리'는 힐링형 워크ेशन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설 운영 성과는 방문객 수치로도 확인된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방갈로 이용객이 2,430명, 치유연수 교육생이 2,471명에 달하는 등 명실상부한 '힐링 1번지'로 자리매김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 위한 펫티켓 홍보

임실군이 지난 3일 임실을 천변 데크길 주변 반려견과 산책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배변 봉투 증정과 함께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홍보활동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펫티켓을 알리고,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날 아침 일찍 반려견과 산책

을 나온 주민들에게 배변 봉투를 직접 배부하고, 목줄 착용·배변 처리 등 펫티켓 실천 요령을 안내했다.

앞으로도 펫티켓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행복한 임실군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농기센터, 8일 한우 농가 질병 관리 교육 실시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8일, 농업인 상상플랫폼 1층 교육장에서 한우 사육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우 비육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질병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25년 하반기 품목별 상설교육 과정의 하나로, 한우 비육단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질병을 예방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원시 한우 사육 농업인이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에서는 가축 질병 관리 전문 수의사가 강사로 나서, 비육 단계 주요 질병의 진단 및 예방 요령, 위생·환경 관리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질의응답을 통해 농가의 현장 애로 사항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찾아가는 진드기 물림 예방 교육 강화

순창군은 가을철에 급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찾아가는 진드기 물림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특히 감염병 발생률이 높았던 마을의 회관을 직접 방문해,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예방 교육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진드기 기피제 사용법 등을 시연하는 등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대표적으로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있다. 이는 각각 쯔쯔가무시균과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릴 경우 감염되며, 2주 이내에 발열, 오한, 구토, 설사,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군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 시 긴 옷을 착용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며, 풀밭 위에 눕거나 옷을 벗어두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외출 후에는 샤워를 하고, 착용했던 옷과 작업복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